

W_F_700

기우제 지내는 쇠소깍

2019년 5월 15일, 서귀포시 송산동(보목동) 이경자씨 댁, 문순덕·김은정 조사.

이경자(여, 1947년생, 서귀포시 보목동)

- 서귀포시 하효동 출생으로 4년 간 서울 생활 이외에는 1971년부터 48년째 보목동에서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어느 집안 머슴과 그 집 무남독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다. 그 때문에 머슴이 쇠소깍에 빠져 죽어버리자 무남독녀는 비라도 오면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기우제를 지냈다. 이후, 비가 내렸고 머슴의 시체를 찾아 잘 묻어 주었다. 그때부터 쇠소깍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.

[제보자] 쇠소깍예.

[조사자] 어르신이 들은 거마씀.

[제보자] 그건 나가 들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. 하효는예 기우제렌 헹 비를 안 오면 비오는 제를 지내는데 다른 지방에는 아무리 지내도 비가 안 와. 제를 지내도. 경현데 거기서 지내면 비가 온다는 전설인데.

효돈동에서 쇠소깍에 강 제를 지내야만. 그거는 뭐냐 하면 예 어릴 때 어머니하고 무남독녀 딸하고 머슴하고 해서 사는데 머슴이 무남독녀 딸을 너무나 사랑한 거라.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를 해. 자기 머슴이랑 좋아하기 때문에 무남독녀 딸은 머슴하고 입장에 더 높은데 해야 될 건데 머슴이 무남독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무남독녀도 그 머슴을 사랑하고게.

아무리 장모되는 분한테 둘이 결혼을 못하게 하믄 죽어불쿠다 하니까 그럼 죽어불라 헷주게. 게난 거기에 내가 잇우다. 쇠소깍으로 영 이어진 내라. 비 오면 그걸로 이렇게 내려와. 거기 가서 진짜 빠정 죽어분 거라.

[조사자] 머슴이마씀?

[제보자] 응. 죽어부난 이제 시체를 못 찾은 거라예. 게난이 딸이 막 쇠소깍에 가서 울면서 비 크게 내려서 내를 치면 그 시체가 흘러내려 올 거주게. 비 크게 오게 해가지고 그 시체만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 달렝 맨날 기도를 하니깐예. 비가 억수로

와가지고 내가 쳤는데 여긴 내랜 하주게. 비 안 오면 내 안 쳐. 아무리 뭐라도.

경행 이제 큰 내가 치니까 그게 내려완에 시체를 찾아가지고 무남독녀가 잘 묻어주고예. 너무나 고맙덴 허멍 거기서 제를 지내는데 그때부터는 비 안 와 가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믄 꼭 비온덴 그런 전설이 있어.

그 여자가 기도를 계속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허영 시체를 발견해사 묻을 거니까.

- 핵심어: 기우제, 무남독녀, 머슴, 쇠소깍, 효돈동, 비